톡톡 튀는 디자인…조용하고 경쾌한 드라이빙

5년만에 다시 태어난 기아차 '올 뉴 쏘울' 시승기

개성 넘치는 내·외관 보는 재미 쏠쏠
기존 쏘울 보다 소음 적고 안정감 UP

'미니(Mini) 나와라. 한판 붙자'

기아자동차가 '올 뉴 쏘울'로 BMW의 '미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만큼 품질과 경쟁력에서 자신 있다는 표현. 국내 유일의 박스카(Box Car) 스타일인 '올 뉴 쏘울'은 5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쏘울의 후속모델이다. 생산량의 90%가 수출될 정도로 해외에선 인기 차종이지만, 국내에선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런만큼 새롭게 다듬은 쏘울은 국내 구매자까지 껴안겠다는 포부로 재탄생했다.

기자가 탑승한 차량은 1.6 GDI 가솔린 엔진을 얹은 최고 출력 132마력, 최대 토크는 16.4kg · m(복합연비 ℓ당 11.6㎞)의 프레스티지 모델.

◇**디자인·공간**=디자인을 빼고 쏘울을 설명하긴 어렵다. 기아차가 디자인에 가장 공 들이는 차가 쏘울이다. 새 쏘울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쏘울과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눈여겨 보면 세심하게 다듬은 디자인이 놀랍다. 한 눈에 봐도 기존의 '호랑이 코' 그릴과 달라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강인하게 변신했다. 안개등과 일체화된 범퍼는 영화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가 연상된다.

전고가 10㎜ 낮아져 훨씬 안정감 있게 보인다. 차체와 루프를 서로 다른 컬러로 조합한 투톤 루프와 루프 컬러에 따라 그레이, 레드, 블랙으로 달라지는 사이드 미러도 감각적이다. 바퀴 휠의 색마저 바꿀 수 있어 500가지가 넘는 색조합이 가능하다. 유리 면적이 커진 차의 뒷면은 미래지향적인 느낌마저 든다.

내부는 한층 더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휠 오른쪽 밑에 있는 엔진시동 버튼이 기어 앞에 자리 잡았다. 공조기와 스피커가 결합돼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점도 만족스럽다. 별도의 버튼을 통해 작동되는 '사운드 무드 라이트'는 운전자가 음악이나 무드 조명으로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시트와 스티어링휠의 가죽 스티치에 다른 색을 넣은 점도 개성있다. 전고가 낮아졌지만 실내 공간은 중형차에 못지 않았다. A필러의 기울기가 더욱 낮아져 개방감도 뛰어났다.

스티어링휠을 자동으로 제어해 평행주차뿐만 아니라 직각주차까지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시스템도 기아차 최초로 적용됐다. 또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등 여성이나 초보운전자를 위한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다.

12일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올 뉴 쏘울'이 줄지어 선 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기아차 제공〉

안락하면서도 운전자의 몸을 꽉 붙들어 매는 시트는 인상적이었다. 반면, 박스카인 탓에 공간이 작은 트렁크는 '패밀리카'로서 아쉬운 점. 시트 밑부분에 위치한 주유구 개폐 스위치도 옥의 티였다.

◇**주행성능**='올 뉴 카렌스' 등 기아차의 최근작은 스포티함이 강해지는 느낌이다. 단단해진 하체와 수입차와 비교해 불만족스러웠던 브레이크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띌 정도다.

부드럽게 걸린 시동은 정차 상태에선 엔진 피스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스티어링휠은 동급의 차량보다 무거웠지만 움직임은 경쾌했다. 차체에 비해 작은 심장이지만 시내 주행에선 가속의 답답함을 느끼긴 어려웠다. 무엇보다 기존의 쏘울보다 소음이 줄었고, 정숙도도 크게 향상됐다.

시승차의 목적지는 순창 강천사. 고속도로에 오르자 엑셀레이터에 힘을 줬다. 시속 120㎞까지는 무난한 동력성능을 발휘했다. 코너에서도 세단보다 높은 전고 탓에 다소 불안정할 것이라 봤지만 안정되게 빠져나갔다.

최근 기아차의 추세처럼 단단한 서스펜션은 인상적이었다. 요철을 넘을 땐 부드럽다가도 속도가 붙으면 탄탄했다. 하지만 시속 130㎞에 다가서자 속도계의 바늘이 느려졌고 풍절음은 쉽게 거세졌다. 작동하고 느끼는 재미와 실용성은 만족스럽지만 달리는 느낌은 세단보다 떨어지는 편.

'올 뉴 쏘울'은 톡톡 튀는 개성과 디자인, 편한 운전에 초점을 맞춘 차다. 스타일과 활용성을 중요시 하는 젊은층 고객이라면 구미가 강하게 당길만하다. 가격은 1595만~2105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44개월간 2400억원 들인 광주공장 최신작
독일차 '미니' 비해 가격은 절반 성능 뛰어나

기아차 '올 뉴 쏘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올 뉴 쏘울'은 기아차가 지난 2010년 프로젝트명 'PS'로 개발에 착수, 44개월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2400억여원을 투입한 최신작이다.

기아차가 '올 뉴 쏘울'에 대해 '보여주고 싶고, 타보고 싶은 편안한 차'라고 정의한 것처럼, 새 쏘울은 개성 넘치는 이미지와 세심한 디자인 요소로 고객에게 다가섰다.

외관은 세계 최초로 기본 컬러의 휠 외에 레드와 블랙 휠커버를 추가 제공하고, 루프와 차체의 색이 다른 투톤 컬러를 적용했다. 내부는 실험적인 디자인 요소로 가득 찼다. 부드러운 재질이 적용된 크래쉬패드와 계기판 상단 보드를 가죽으로 감싼데다 무광의 도어 스위치, 스피커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감마 1.6 Gdi 가솔린 엔진과 U2 1.6 VGT 디젤엔진은 실사용 영역에서 성능을 최적화시켜 실제 주행시 체감 성능을 한층 향상시켰다. 안전성에도 중점을 뒀다. 차체 제어장치인 VDC에 파워스티어링의 협조 제어를 가능하게 한 VSM(Vehicle Stability Management), 경사로 정차 후 출발 시 제동력을 일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밀림 방지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됐다.

이런 품질 덕분인지 '올 뉴 쏘울'은 독일 수입차 미니(Mini)와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우세함을 보였다.

지난달 19일 기아차가 성인 남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쏘울을 수입차로 소개한 1그룹 89%, 국산차라고 공개한 2그룹 74%가 인테리어와 시트 착좌감, 조작 편의성, 시야 개방감, 승하차 편의성 등에서 쏘울의 손을 들어줬다. 또 눈을 가리고 차종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고객에게 승차감을 묻자 75%는 쏘울이 낫다고 답했다.

'올 뉴 쏘울'의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된 내부.

기아차는 엔진 성능에서도 동급인 미니쿠퍼 1.6 모델과 비교해 쏘울이 최고출력 132마력, 최대토크 16.4kg · m(연비 ℓ당 11.6㎞), 미니쿠퍼가 최고출력 122마력, 최대토크 16.3kg · m(연비 ℓ당 12.7㎞)로, 쏘울이 한발 앞선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그동안 쏘울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차종이었지만 새로 나온 '올 뉴 쏘울'의 품질력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매력을 나타낼 것"이라며 "미니의 절반 가격에 성능이 더 우수한 '올 뉴 쏘울'의 국내 연 2만대 판매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995.48 (+18.18)	▲ 510.7 (+7.79)	2.96% (0.00)	▼ 1071.40원 (-1.10)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자영업자 등 109만명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다음달 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다음달 2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납세자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일본 센다이상공회의소 사절단이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 찾은 日센다이상공회의소 사절단

"도시 교류·민간 경제협력 강화"

광주상공회의소가 우호협정 체결을 기념해 광주를 방문한 일본 센다이상공회의소와 도시 교류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상공회의소 사절단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카마타 센다이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오노 타카시 한일친선 미야기현의회 의원 연맹 회장과 구와하라 시게루 시오가마 상의 회장, 미야기현내 각 상공회의소 대표 등 21명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일본 센다이시에서 체결한 광주상의와 센다이상의 간 우호협정 체결을 기념해 당시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의 방문 요청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이뤄졌다.

사절단은 광주상의와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운태 광주시장 면담과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주최 오찬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견학,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 시찰, 한국알프스 견학 등의 일정을 가졌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6월에 체결한 우호협정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해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카마타 센다이 상의 회장은 "양 상의의 우호협정체결 이래 광주시와 센다이시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광주시의 산업, 문화 등을 차분히 시찰해 일본에 돌아가서 지역간의 산업, 경제교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